

광주 2순환도 4구간 내달부터 유료

(서창IC~신가IC)

승용차·2.5t 미만 트럭 1천원

■ 광주 제2순환도로 차종별 통행료(본선)

구분	차종	통행료		
		1구간 (동광주IC~소태IC)	3-1구간 (효덕IC~서창IC)	4구간 (서창IC~신가IC)
경차	800CC 미만 소형차	500원	500원	500원
소형	승용차 (16인 이하) 소형트럭(2.5t 미만)	1,000원	900원	1,000원
중형	중형버스(17인승 이상~32인승 이하) 중형트럭(2.5t 이상~5.5t 이하)	1,900원	1,900원	2,000원
대형	대형버스(33인 이상) 대형트럭(5.5t 초과)	2,400원	2,300원	2,500원

광주 제2순환도로 4구간 민자도로(서창IC~신가IC 4.58km)가 오는 7월1일부터 유료 운영된다.

통행료는 본선의 경우 ▲승용차·16인 이하 버스, 2.5t 미만 트럭 등 소형 1천원▲17~32인승 버스, 2.5~5.5t 트럭 등 중형 2천원▲33인 이상 버스, 5.5t 초과 트럭 등 대형 2천500원이다. 지선인 서창IC~무진로 구간(유덕IC 랍프)은 ▲소형 600원▲중형 1천100원▲대형 1천4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제2순환도로 전체 구간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1구간인 동광주IC~소태IC(8.6km) 1천원과 3구간인 효덕IC~서창IC(8.8km) 900원을 합쳐 모두 2천900원이 된다.<표>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2구간 소태IC~효덕IC(2.9km)과 호남고속도로 구간(10.9km)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제2순환도로 4구간 중 서창IC~신가지구(4.58km)는 제2순환도로가 출자한 민자 1천670억원과 시비 730억원이 투입됐고, 신가지구~산월JCT(1.92km)는 토지공사가 708억원을 들여 완공, 지난 5월15일 개통·시범 운영해왔다.

4구간은 개통 후 1개월의 무상시험 운영기간 중 1일 평균 5만8천913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예상목표(4만9천783대)를 118% 초과했고, 최근 1주일 동안은 139%대까지 올라섰다. 제2순환도로 4구간 민자 도로는 제2순환도로가 앞으로

30년간 유료로 관리·운영한 뒤 광주시에 귀속시키게 된다. 통행료 수입보장은 15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의 80%에 미달하는 부분을 재정보전하고, 120%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수토록 했다.

한편 제2순환도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 2.37km는 오는 8월,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문흥JCT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시내버스 교통카드(빛고을 카드) 사용역이 월간 5천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면, '마이비' 홈페이지(www.mybi.co.kr)에 접속해 교통카드(5개까지 등록 가능)와 소유자임을 실명으로 등록하면 된다. '마이비'는 5천원 이상인 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한다. 이용 실적은 8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10월부터는 '마이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

월 5천원 이상 내달 2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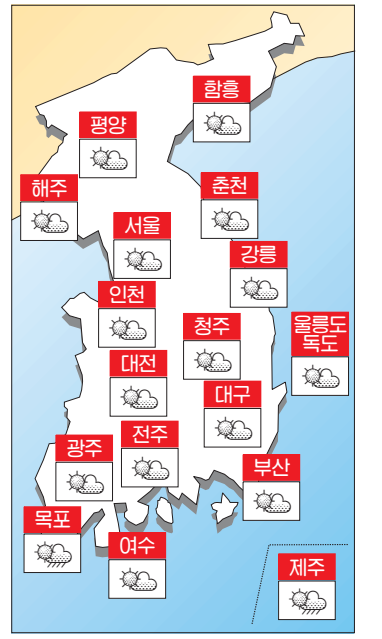
흐려지는 하늘

6월 27일

(음 5월 13일) <주간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차차흐려짐	22~28℃
목포	한때 비	20~26℃
여수	차차흐려짐	20~24℃
완주	한때 비	20~26℃
구례	차차흐려짐	21~29℃
해남	한때 비	20~26℃
남원	차차흐려짐	21~28℃
홍천	차차흐려짐	21~29℃
영광	한때 비	20~27℃
진안	한때 비	21~27℃
진천	차차흐려짐	21~28℃
남원	차차흐려짐	20~27℃
홍산도	한때 비	18~22℃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면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면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11:05 썰물 < 05:13
여수 밀물 < 06:30 썰물 < 00:50
19:30

▲해돋이 05:20 ▲해질 19:51 ▲달돋이 17:05 ▲달짐 02:12
기상안내전화: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목)	29(금)	30(토)	7/1(일)	2(월)	3(화)
날씨						
최저/최고	22/26	21/28	20/30	21/26	22/25	21/28

새터민 10명 중 7명 '우울증세'

탈북 후 국내 정착 과정에 있는 '새터민' 10명 중 7명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리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26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북한 이탈주민진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탈북 이후 한국 내 정착을 위한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새터민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 상태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30.6%가 '경증 우울'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상인 경우는 30.6%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비만 11.7%, 혈압 이상 약 6%로 남한의 31.8%와 9.3%보다 낮았으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이상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습관병'에서는 건강한 상태였다.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장 환자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 질환'(75명)과 '여성생식기계 질환'(7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염성 질환으로는 간염(32명)과 결핵(8명)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불법 현수막 크코 다칩니다"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26일 서창~남평 간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 시내 각 구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내건 사채·폰팅·성인 마사지·대리운전 업체 등을 '육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26일 서창~남평 간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 시내 각 구청은 최근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내건 사채·폰팅·성인 마사지·대리운전 업체 등을 '육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교사·공무원 노조

"조합원 결혼지원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와 업무 제휴

배우자감으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인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가 조합원들의 결혼 지원에 나섰다.

26일 결혼정보회사 ㈜종은만남 선우에 따르면 선우는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시 공무원 노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선우의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시 회비의 10%를 할인받게 되며 조합원 신분

증을 제시할 경우 까다로운 신원확인 절차의 일부가 생략된다. 또 조합원 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측은 저출산, 결혼연령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의 한 방안으로 제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업·단체 차원의 결혼 지원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선우 관계자는 전했다.

선우 광주센터 오현주 지사장은 "회원가입 외에 단체 미팅 같은 1회성 이벤트에도 기업 지원 형식의 참여가 늘고 있다"며 "결혼하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랑 자면 성적 주겠다" "MT서 내 몸 만졌다" 준코·상광 '교수 성희롱' 폭로 파문

KBS 2 '미녀들의 수다'서



<준코>

<상광>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 생활 경험담을 듣는 KBS2 TV 오락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일본인 출연자 사가와 준코가 "현재 수강 중인 대학의 교수로부터 잡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미녀들의 수다'에서 사가와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에 몇

번 빠졌더니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인은 한국 여자보다 남자랑 잘 잔다며?'라고 운을 댄 교수는 '나랑 같이 자면 수업에 아예 안 들어와도 성적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중국 미녀 상광(24)도 한 스포츠지와 인터넷에서 "준코를 성희롱한 교수와 MT를 갔을 때, 그 교수가 술 마신 채 여러 학생 앞에서 '성적을 잘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줘라'라고 내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상광은 "그 교수가 내 몸을 쓰다듬었다. 손으로 다리도 만졌다. 정말 화났지만 교수라 거절할 수 없어 당황한 채로 있었다"고 말했다.

준코가 재학 중인 대학 측은 "학생이 지목한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대학 부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의 계약직 강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희롱 사실이 있으면 해당 강사의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독일인 출연자 미르야 말레츠키는 "한국 학원에서 일할 때 학원 사장이 날 사무실로 불렀는데 날 안고 입도 맞췄다. 그 사람은 유부남인데 나에게 드라이브도 가져고 했다"고 밝혔고, 캐나다인 루베이다 던포드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서양 여자들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며 언어로 성희롱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름바다 '122 구조대'

해경청 내달 2일 발족

해양경찰청은 해상 인명구조 활동을 전담할 122해양경찰구조대가 전국 13개 해양경찰서별로 7월2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22해양경찰구조대는 응급구조요원 1명, 수색구조요원 5명 등 각 경찰서별로 6명씩 편성돼 3교대로 24시간 긴급 출동이 가능하다.

응급구조요원에는 간호사 6명(남자 2명, 여자 4명),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9명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시사저널 기자 22명

전원 사표 제출기로

편집권 갈등으로 파업중인 시사저널 소속 기자 22명 전원은 26일 사측과의 협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번 주말 사표를 제출기로 했다.

시사저널 노동조합 김은남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바뀌지 않고 있고 대화에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최종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기로 했다"면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대로 있는 건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사 주간지를 창간하기로 하고 내달 2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